

2024년 1학기 다문화 정책연구학교

담당교수: 강남욱(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/한국어교육학과)

1. 일정: 2024년 3월 26일
2. 장소: 중앙다문화교육센터
3. 내용: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신규교 컨설팅

용어정리

- 이주배경학생의 언어-한국어, 이중언어
- 이중언어: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언어
- 이중언어는 단순한 보존은 계승이 된다. 말하는 환경은 되나 문해력이 해결이 안되는 상황
- 한국어 교과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, 자신의 모국어 수업(중국어, 러시아어 등)에서 그 언어로 되어있는 학술, 교과 내용을 접한다 하더라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,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

연구 검증방법에 대한 답변

- 이 연구의 결과를 지표화하기 어렵고 교수학습 검증방법은 없음(사전, 사후 세트 없음)
- 하지만 여러가지 정서적인 부분의 질적변화는 가능할 것 같음(언어성 같은 경우, 학생의 반응 정도, 학생주도성, 자기조절,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의 기대감,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감-내 삶에 도움이 되고, 마음이 편안함, 이중언어 혹은 한 언어 사용의 정서적 안정감(불안감사), 독서지수(예, 중국어 독서지수O, 중국어능력시험 HSK X) 등
- 연구학교 과제 실행 후 학생의 언어정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? 얼마나 나아졌는지 어떻게 확인할까?---> 정형화된 검사 NO, 질적인 관찰 OK(랭귀지 포트폴리오..)

본 연구의 주안점

- 산발적인 교수방법을 모으는 것이 목표(유형화)

-
- 교수학습개발(예, 토론-실행-환류 등)-교수법(교수방법)의 선례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

기타사항

- 운영과제 구성: 상위의 주제(꼭지)를 묶어서, 상위주제1의 언어성/문화성/시민성으로 나누어 고민하는 것도 어떨까?
- 매개능력(미데이션): 말 중개
- 언어산출, 언어이해를 언어중개능력이라고 함.
- 문해의 노출: 예) 타종, 판넬, 안내문 등을 다중언어로 노출
- 틀, 관념, 개념+상호문화능력+시민성(부수적인 언어태도)을 갖고 듣는다
- 병존언어
- 프로그램 세팅이 잘 되어야 함-이 수업이 언어 수업에 가까운지, 교과 수업에 가까운지
- 수업 중 이 언어 사용했다가, 저 언어 사용했다가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다. 단 수업의 세팅과 목표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다면.
- 언어자원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조성, 언어의 메타적인 생각

-
1. 일정: 2024년 2월 28일
 2. 장소: 중앙다문화교육센터
 3. 내용: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워크숍

문해

- 그 나라 문화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?
- 가족 문해: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가?

학습(學習)의 속뜻

- 학이시습지는 흔히 알고 있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의 뜻이 아니라
- 배우고 나서 어느 때(순간)에 이르러 그것을 내가 몸으로 익히게 되면
- 뜻으로 재해석
- 언어도 같은 상황(패턴)일 듯: 안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!

- 내가 어떤 성취를 어떤 코칭을 받아 이루어냈을 때 언어 자극 안에서 충분한 불억열호(칭찬)의 경험을 받음→ 이럴 때 상승효과!

제1언어, 제2언어, 외국어

- **제1언어(L1)**-약3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, 언어 화자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(習 또는 習得)된 언어 / 통상적인 경우 가정어 계승을 통해 이루어짐
 - 어린 시절에 가장 처음으로 습득한 언어/ 사용에 있어 더 우세하거나 선호되는 언어
- **제2언어(L2)**-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서 공식적,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다소 주지적인 입력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익혀(習>學)나가는 것
 - L1을 습득한 후에 학습된 것으로, 일차언어에 비해서 숙달성이 낮은 언어이며, 그 언어는 각 개인에게 미숙하거나 낯설고 새로운 언어
 - 원어민 화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/ L1보다는 미숙하거나 언어 수준의 숙달성이 낮은 언어
 - 모국어를 학습한 이후에 또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
 - 어린이가 제1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잠재의식적인 과정
 - 제2언어가 노출되는 경우와 교실 상황에서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
 -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 베트남어 화자
 -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온 외국인 자녀
 -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경험하면서(보통 어릴 때) 현지에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경우
- **외국어(FL)**-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지만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에 따라(때로 타의적으로) 배우게(學)된 언어

| | 제2언어의 습득 | 외국어 학습 |
|----|---|---|
| 성격 | 비형식적 학습, 자연적 학습 | 형식적 지식, 명시적 학습 |
| 목적 | 공인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어 그 사회나 국가의 정치적, 경제적인 참여를 위해서 | 외국 여행이나 그 나라 말을 쓰는 원어민 화자들과의 의사소통, 외국 문학이나 과학, 저작물 읽기 등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|
| 방법 |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환경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| 공식적인 수업과 환경적 지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|

나의 생각> 본교의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제2언어일지, 외국어일지 개념을 정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그래야 방법적인 면의 접근이 맞춤형으로 될 것으로 보임.

※모든 수업, 특히 초중고생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경험보다는 유사학습의 기회(유의미한 접촉의 기회)로 경험하는 것이 좋음.

아동-청소년-성인의 언어 습득과 학습

터득하면서 '습득'한 언어와 고찰하면서 '학습'한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?

- 영유아의 언어 **習**, 아동의 언어 **習>學**, 성인의 언어 **習<學**
- 기본적으로 습득의 바탕은 가정의 양육자. 계승
- 성인의 경우 언어(외국어)는 교육 기관에서
- 아동의 경우 구어 소통과 기초 문식성(literacy) 교육은 가정에서 / 언어 수용과 산출의 조정 방법은 교육 기관에서
- 청소년의 경우 문식성의 확장과 성장, 훈련을 방향으로(외국어의 경우는 성인의 방법보다 더 가깝게, 심리·정서에 맞게끔) / **청소년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!**

지금 내가 만날 학생들은 한국어를 '학습'하고 있을까, '습득'하고 있을까?...혹은 어떤 다른 맥락 속에 있을까?

현장에서 마주하는 이주배경 학습자의 조건

- 제1언어, 제2언어,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있음.
- 이주 연령에 따라 영(0)언어 상태가 되기도 함.
 - 어느 쪽 언어로도 문식력이 형성되지 않고 언어 사용이 불완전한 반(半) 링구얼리즘 상태가 존재하기 함.
 - 자국의 모국어 교육 경험, 가정 문식력의 상황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.
 - 한국어 접촉 맥락,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,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.

※언어의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판단은 학교현장에 있음. 그 나라 말의 문장을 줘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. 주 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(주 언어가 터득되지 않은 상태)에서 양손을 연습하는 것은? 어느 걸로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.

제2언어(외국어) 습득의 다섯 가지 가설

외국어에 어떻게 접근해야 '학습'에서 '습득'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?

- ① 습득-학습 가설 **學과 習은 다르다.**
- ② 자연적 순서 가설 **習에는 일정한 절차, 규칙이 있다.**
- ③ 감시 장치 가설 **學은 習을 감시하고 점검하고 때로 방해한다.**
- ④ 입력 가설 **習은 '이해 가능한 입력(i+1)'이 전제되어야 한다.**
- ⑤ 정의적 여과 가설 **마음의 근심 걱정은 '習'이 잘 안 되게끔 방해한다.**

제2언어(외국어) 습득의 다섯 가지 가설

위 가설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한국어 습득을 살펴보면

- 학습의 **조직화나 체계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민감하지 않음**
- **언어 사용 규칙(문법)의 터득이 때로 L1처럼 수월하게 될 때가 있음**
- **감시 장치는 별로 작동하지 않음.** 즉 의식적인 학습이나 외워야 할 것으로 인해 수행 능력이 방해받지 않음
- 이해 가능한 입력(**i+1**)을 **가능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개인차가 큼**
- 정서적인 안정(신남, 즐거움, 재미)이 전제되면 정의적 필터는 별로 작동하지 않고, 심리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기도 함.(한국어학급을 마치고 환급 후 말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는 경우)
- 동기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**자기 객관화 또는 자기 통제가 충분치 않아서**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**동기를 형성시켜 주기도 어려움.**(특히 청소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며, 교과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과 맞물려 학습 부진으로 이어짐)

어떤 형태, 어떤 과정으로 이중언어자가 되는가?

-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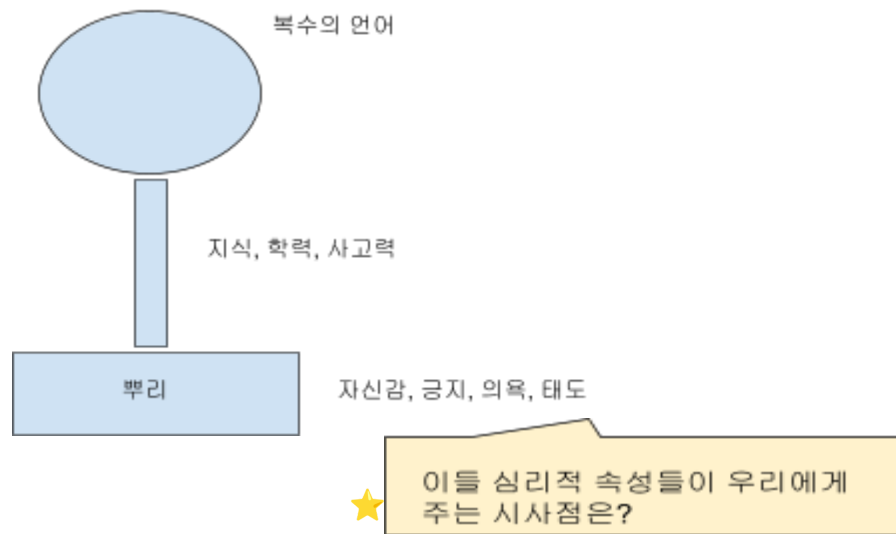
| 동시형 이중 언어 습득 | 순차형 이중 언어 습득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두 언어를 동시에 접함 | 두 언어를 차례로 접함 |
| 국제결혼 가정(집에서 동시에 양 언어) | 중도입국, 외국국적 자녀(집에서 한 언어, 이주로 새 언어) |
| 두 개의 언어를 접하는 규모와 수준의 균형이 문제가 됨 | 언어 능력의 토대가 되는 제1언어의 성숙도가 문제가 됨 |
|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(학습능력은 높으나 사춘기에 들어 정체성 혼란이 폭발함) | 일반적인 한국 사례 |

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. 또한 한국이 의외로 '제1언어의 성숙도'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.

- Cummins의 이중언어 발달의 4원리

- [원리1] 상승 효과를 낳는 가산적 이중 언어 - 모어가 사회의 주요 언어인 경우 긍정적인 면이 많은 가산적 이중 언어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는데, 모어가 사회의 소수 언어인 경우는 소중한 언어를 잃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감산적 이중 언어가 됨.

○ [원리2] 제2언어 상호 의존의 원칙



- [원리3] 회화 능력, 교과 학습 언어 능력 - 기본적 의사소통능력(생활한국어)을 습득해도 인지적 언어사용능력(학습 한국어, 교과 문해력)을 가지려면 4~5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.
- [원리4]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동 충족의 원칙 - 어찌 되었든, 무슨 수를 써서라도, '만나고 접촉하고 교류하고 소통을 하도록 유도해야' 한다는 원리 / 양적 교류가 아닌 질적 교류의 공급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. / 한국의 경우, 분리형 한국어 집중 학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중언어 습득의 목표 설정과 소요 시간

- 언어에 따른 표준적 결과는 없음. (캐나다 몰입 교육 연구에 따르면 약 5,000시간 이상, 했수로 6-7년 원어민에 가깝게 되는 것으로 파악)
- 한국에 온 이주 아동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, 즉 집에서도 제한적으로 쓰거나 안 쓰는 계승어와 현지어가 짝을 이루는 경우, 현지어의 회화 습득 시간은 상당히 빠르지만 교과 학습과 관련된 교실 담화, 독해 능력, 추상적인 어휘의 습득은 제1어가 제대로 발달한 경우라도 5-7년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임. 9세 이전인 경우 대부분 모어(계승어)는 쇠퇴, 소멸

- 즉, 본인의 제1어(모어)를 어느 정도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화와 학습 언어 사이에 큰 격차가 있고, 가정-학교-지역이 연계된 교육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꾸준히 필요함.
- 기본적으로 이중언어의 유지 또는 새 언어의 습득 과정에는 ★ 해당 사용자의 동기, 동화의 의지(의향), 삶의 쓸모, 자기 정체성과 같은 정의적 요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.

이중언어 문해의 '매튜 효과(Matthew effect)'와 시사점

한국어에서 좋은 문해 공급을 받은 학생이 가지는 '문해'의 밀천(자본) VS 이주 배경 혹은 이중언어 배경의 학생이 가지는 '문해'의 밀천(자본)

자본이 많은 학생은 더 큰 자본을 쉽게 벌고, 자본이 없는 학생은 고통스럽게 애써도 조금씩 벌고, 그 격차는 가면 갈수록 극명하고 따라가기 힘들어진다.

<시사점> 1. 어떤 자원을 잘 써서 따라갈 수 있게 할지? (중국어 수학을 잘했다면-->한국어 수학으로 따라갈 수 있게

2. 평균까지는 올라가도록 하자!

우리가 바라는 인재, 이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한국 사회

강남욱(2022), "다중언어 다중문화 사회의 교사의 역할 고찰과 미래"제언

- 국어교육의 역할 변화와 "Teacher Talk"의 새로운 정련
 - 다른 한국어 듣기, 낯선 한국어 듣기, 불완전한 한국어(발음/문법)에 열린 태도로 듣기.
 - 어려운 개념을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기, 적합한 피드백과 메시지 주기
- 언어 다양성이 있는 교실의 교과 운영(교수-학습) 역량 제고
 - 분리적 관정보다 교과별로 다언어적 자원을 자극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필요

- 문식성(literacy)과 사회적 행위자(social agent)에 대한 인식 전환

- 표면적 '사용 언어'로 문해 수준을 재단하고 분리하지 않으며, 다중-복합 문식성, 미디어-디지털 문식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접근 필요

- 융,통합적 시대, AI 시대, 이동과 이주 중 이질적 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변혁적(transformative) 역량을 가진 학생 행위주체성(student-agency) 고려

*변혁적 역량: 대단한 것이 아니라 틀(꼴)을 바꾸는 것, 어느 곳에 계속 이동하여 생활할 때 그 곳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역량

<요컨대>

-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삼아 긍정적 발전을 가져올 인재
- 다중언어문화 정체성을 건전하게 형성하면서 인지와 정서를 성장시킨 인재
- 다중언어문화 정체성과 학습자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리터러시와 레퍼토리를 상황과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변혁적 역량을 가진 인재

- 국어를 전승, 전달해 온 교육에서, 한국어를 지원, 보조하는 교육을 지나, (한국어를 중심으로 한)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, 공유하는 교육으로.
- 문해의 맥락통일성(contexterence, 컨택시어런스)을 확보하여 보편성과 지역성을 통찰하여 실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민 교육으로.
- 이주배경의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, 모든 학생이 인재가 되는 거시적 특과 기초를 유지하는 교육으로.

네 가지 화두

1. '멀티(multi)'에서 '플루리(pluri)'로

- a. 다언어주의(multilingualism), 다문화주의(multiculturalism): 어떤 공간에서 여러 언어와 문화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
- b. 다중언어주의(plurilingualism), 다중문화주의(pluriculturalism): 각 개인이 수준이 다른 다수의 언어와 다수의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

- c. 다중언어 학급은 여러 언어를 쓰도록 함.
- 2. 한국어를 포함한 다중적 '리터러시'로
 - a. 한국어 또는 다중언어로 익히는 '나 자신의 리터러시'가 바로 미래 사회 인재 성장의 핵심 요소
 - b.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
 - i.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: 현장에서 **semilingualism** 사례를 통해
 - ii. 양손잡이 문해의 가능성: **plurilingualism**의 관점에서
 - iii. 교과 문해력의 중요성: 특히 수학, 과학, 사회 교과서의-**교과 교육에서의 '다중언어역량'**에 대해서
 - iv.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력 제고 필요성: 다시 한국과 한국어를 떠난다 하더라도 **학습자 주체성(agency)**의 의미에서
- 3. 5Cs '공동체(communities)'를 고려하여
 - a. 학교 내 다양한 이주 배경(계승어, 제2어 등)을 가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
 - b. 학교 밖 지역 어르신(노인) 및 특정 연령 계층과의 정기적인 대화 연습
 - c. 학교 밖 지역 특정 직업군과의 직업 탐색, 인터뷰, 조사 활동
 - d. 지역 내 이주자 기관에서의 번역 활동, 봉사 활동
- 4. 언어 발달에 대한 관찰과 대처의 방향
 - a. 생활 한국어-기초 학습 한국어-교과 중심 한국어의 종합적 접근
 - b. 그룹별 무학년 체계에서 좀더 세분화된 학령군별 접근의 필요
 - c. 교과목별(언어(국어), 수학, 과학, 사회과) 상세한 '언어 사용 양상'에 대한 주해
 - d. 숙달도의 진단, 성취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'발달하고 있음'을 인지하고 꾸준히 학생의 '포트폴리오'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

담당자를 넘어: 전도사로, 선도자로, 리더로

→ 언어 다양성의 '자원'이 사장되지 않도록

◆ 한국어는 '우선'이지만 '우월'은 아님

◆ 우리 모두의 일

◆ 학생에게는 위탁 또는 한국어학급 안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**한급 또는 교과 진입 후가 더욱 중요**

→ 교과 교육과 학교 전반에 한국어 교육적 공감대 필요

- ◆ 다중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교과를 가르칠지, 교과별로 고민해야 함

→ 이주배경학생 대상 교육의 삼원(三元) 차원의 접근

- ◆ 언어와 소통, 심리와 정서, 진로와 동기 의 “삼각 편대”
- ◆ 세 가지 요소는 상호 상승적인 것(특히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갈수록)
- ◆ 언어성 판단에서 정의적 필터는 아동,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



→ 지역 기반의 새로운 관점

- ◆ 삼원 요소에서 지역은 가장 직접적인 '환경'을 구성함
- ◆ 한국어 또는 다중언어로 '접촉'하고 있는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
- ◆ 지역 기반을 좀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, 유관 기관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(나의 동네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고, 접촉하고, 다중언어적으로 말하게 하라!)

→ AI의 교육은 주된 것과 보조적인 것을 의도하여

- ◆ 교수자가 A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, 교수자를 통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◆ 알아서 하는 '자학자습용'으로 혼자 하게끔 두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. 적극적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연습하여 이것이 학교 밖 시간에서도 이어지는 방향을 찾아야 함.